ifez Journal

KOR

이번 호 표지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Vol.130 | 2026 07 + 08

IFEZ JOURNAL
웹진 바로가기
www.ifez.go.kr/journal

ifez Journal
IFEZ BIMONTHLY MAGAZINE
2026. 07+08 Vol. 130

발행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발행일
2026년 7월 1일
발행호
통권 제130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54-6280548-000013-07
담당부서
미디어문화과
기획·디자인
웨스트코㈜

IFEZ JOURNAL
웹진 바로가기
www.ifez.go.kr/journal

Cover story
한여름 밤을 깨우는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의 열기.
세계를 매료시킨 축제의 현장에서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IFEZ의 미래를 마주합니다.

CONTENTS

BUSINESS

04 SPECIAL THEME
IFEZ가 만들어가는
메가문화생태계, K-콘랜드

10 ISSUE
생산기지를 넘어,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는 송도 바이오

12 6-CORE
IFEZ GLOBAL CORE
Third. 글로벌 인재를 머물게 하는 도시의 힘,
정주 환경

14 IFEZ NEWS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IFEZ의 활동

WITH US

20 SPECIAL INTERVIEW
IFEZ 내 국제기구를 만나다
<ESCAP 편>

24 INSIDE
회색빛 빌딩 숲 사이 녹색의 행복을 전하다
<공원운영팀 편>

28 NOTICE
Insight in site, IFEZ

LIFE

32 TRIP
낮보다 더 매력적인
IFEZ의 한여름 밤 여행
<IFEZ SUMMER NIGHT TRIP>

36 TREND
먹고, 찍고, 소장하는 'K-투어' 루틴
2026 K-TOUR TREND

38 CULTURE
IFEZ 문화소식
<아트센터인천, 트라이보울>

40 MICE
송도컨벤시아
ISSUE & CALENDAR

42 EVENT
일타강사 / 일상 한 컷 /
Opinion Leader's Review / 후기를 부탁해

K-콘텐츠 산업이 IFEZ를 무대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영종·청라·송도국제도시를 하나의 문화·산업 벨트로 묶는 'K-콘랜드(K-Con Land)' 프로젝트가 그 출발점이다. 단순한 소비의 공간을 넘어, 문화와 산업이 상생하는 IFEZ만의 차세대 메가문화생태계를 따라가 본다.

THE STAGE OF K-CULTURE

ONE TRIANGLE, IFEZ K-CON LAND

IFEZ가 만들어가는 메가문화생태계, K-콘랜드

세계 시장을 매혹할 새 성장엔진, IFEZ 'K-콘랜드'의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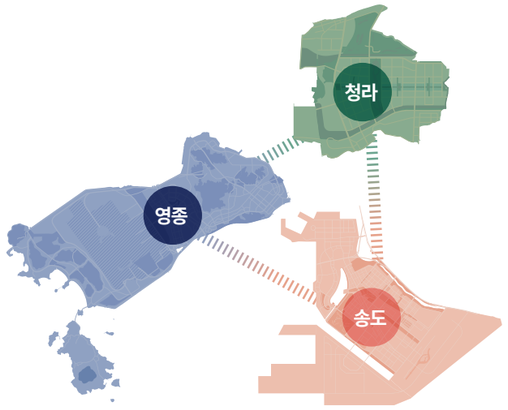
인천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K-콘텐츠 산업'이 집중 주목받고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수출 모델을 넘어 국경 없이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산업은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최고의 전략적 카드다. 정부가 오는 2027년 글로벌 콘텐츠 4대 강국 도약이라는 원대한 청사진을 공식 제시한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고부가가치 비즈니스의 승부수가 될 메가 프로젝트 'K-콘랜드'의 본격적인 출범을 선언했다. 단순히 문화 상품을 소비하는 단발성 공간을 탈피한다는 각오다. 문화와 관광, 그리고 첨단산업이 유기적으로 융합된 글로벌 허브 도시를 조성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영토를 대폭 넓히고 인천을 세계적인 문화·경제 중심지로 견인할 전환점이 이제 막 시작됐다.

2024년에 열린 인스파이어 그랜드 오픈식

T R I A N G L E

영종·청라·송도를 하나로 묶는 **'트라이앵글' 공간 전략**

K-콘랜드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핵심 경쟁력은 영종, 청라, 송도 국제도시의 지리적·기능적 강점을 하나로 묶는 '트라이앵글 공간 전략'에 있다. 인천공항경제권의 우수한 접근성을 갖춘 영종 지구는 아레나와 대형 실내외 공연장, 그리고 첨단 IT 기술 기반의 버추얼 콘서트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영상문화·관광 허브로 거듭나고 있다. 청라 지구는 서울 상암동 등 기존 방송·미디어 시설 인프라와의 연계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콘텐츠 제작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아시아 최고의 영상문화 기획·제작 복합벨트로 디자인된다. 마지막으로 송도국제도시는 글로벌 네트워크 허브이자 학술 연구 거점으로 기능하며 이들 지구를 촘촘하게 연결한다.



1 — 국내 최초 글로벌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 기공식

2 — 2024년 BMW 드라이빙센터 건립 10주년

1

2

K - C O N L A N D V I S I O N

과감한 투자와 글로벌 인재, **비전을 현실로 바꾸는 힘**

지속 가능한 K-콘랜드 비전은 글로벌 대규모 외자 유치와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축을 성공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비로소 완성된다. 첫 단추는 이미 꿰어졌다. 인천경제청은 2026년 1월 미국 호스피탈리티 전문 기업인 케슬러 컬렉션 및 LH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청라국제도시 투자유치 용지에 총사업비 2조 원 규모의 '청라 문화·관광 복합단지(I-CON City)' 조성을 본격화했다. 약 26만 m² 부지에 부티크 호텔, 리조트, 라이브 뮤지엄, VFX(시각특수효과) 스튜디오, 아레나 등이 결합된 세계적 수준의 복합 문화예술 생태계가 들어설 예정이다. 여기에 송도국제도시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에 개소한 '글로벌 K-컬처 센터'가 실무형 전문 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연구를 전개하며 비전 달성의 핵심 촉매제 역할을 맡는다. 자본과 기술, 인력이 융합된 이 강력한 구조를 통해 IFEZ는 글로벌 K-콘텐츠 시장을 선도하는 가장 완벽한 마중물이 될 예정이다.

3

4

3 — 2026년 1월 21일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청라 문화·관광 복합단지 (I-CON City) 양해각서 체결식'

4 — 2025년 10월 열린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글로벌 K-컬처 센터 개소식

숫자로 보는 K-콘랜드

연간 방문객
5천만 명

일자리
5만 개

문화콘텐츠 수출액
10조 원 달성

K-콘랜드가 조성되면 연간 방문객 5천만 명 유치, 일자리 5만 개 창출, 문화콘텐츠 수출액 10조 원 달성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

총사업비
2조 원

미국 케슬러 컬렉션 등과 함께 청라국제도시에 문화·관광·콘텐츠 복합단지(I-CON City)조성

면적
26만 m²

호텔·아레나·VFX 스튜디오·K-콘텐츠 타워 조성 등 '아시아의 할리우드'의 핵심 거점이 될 청라

글로벌 콘텐츠 4대 강국

정부의 '제3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발맞추어, 인천이 글로벌 K-콘텐츠의 핵심 마중물로서 견인할 세계 시장 속 대한민국의 위상

상상이 현실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K-콘랜드의 공간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이 세계적 수준의 문화·관광 인프라로 디자인되고 있다. 청라의 차세대 엔터테인먼트 공간, 영종의 독보적인 복합리조트 벨트, 송도의 글로벌 교육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전 세계 관광객의 일상을 사로잡을 다채로운 문화 생태계, K-콘랜드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K-콘랜드라는 거대한 퍼즐을 완성할 IFEZ의 핵심 인프라들을 소개한다.

CHEONGNA
문화·관광·콘텐츠 복합단지

스타디움부터 복합리조트, 글로벌 캠퍼스까지…
세계가 찾아올 IFEZ 문화 인프라

I-CON City 청라아이콘시티

청라국제도시 투자유치용지 약 26만㎡에 문화·관광·콘텐츠 기능과 주거가 결합된 약 2조 원 규모의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단지 내에는 부티크 호텔, 리조트, 라이브 뮤지엄을 비롯해 VFX 스튜디오, 아레나, K-콘텐츠 타워, 공원 등이 들어선다. 본 프로젝트는 청라의 문화 및 관광 인프라를 고도화할 핵심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미국 케슬러 컬렉션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MOU를 체결했으며, 다올자산운용, SK증권, 포스코이앤씨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내외 유수 기업의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복합단지 구축을 위한 절차가 원활히 추진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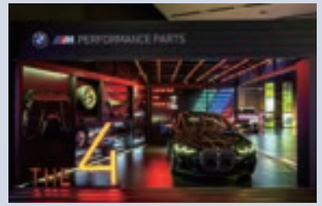
스타필드 멀티스타디움

세계 최초로 돔구장과 복합쇼핑몰을 결합한 차세대 스포츠·문화·엔터테인먼트 거점이자 청라의 새로운 랜드마크다. 1년 내내 전 세계적인 스포츠 경기와 대형 K-POP 공연을 개최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연간 2,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 유치와 3만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국내 레저·문화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상징적 공간으로 꼽힌다. 현재 약 40%의 공정률을 보이며 순항 중으로, 오는 2027년 말에서 2028년 초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YEONGJONG
공항경제권

복합리조트
(인스파이어리조트 & 파라다이스시티)

영종 서부권을 동북아 대표 리조트 클러스터로 견인하는 양대 축이다. 북미형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인 '인스파이어'는 거대한 생산유발효과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의 새 활력이 되고 있으며, 한국형 복합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는 예술과 엔터테인먼트를 융합한 '아트테인먼트'를 무기로 독창적인 문화 공간을 선사한다. 이들 리조트는 영종국제도시가 글로벌 관광 허브로 도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BMW 드라이빙센터

독일과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영종에 문을 연 국내 최초의 드라이빙 복합 문화공간이다. 개장 이후 10년간 약 160만 명의 방문객을 모으며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았다. 전문 트랙과 다양한 전시·체험 시설, 체육공원 등을 갖춰 경험 중심의 즐거움을 전한다. 최근 BMW 그룹 코리아가 오는 2029년 말까지 운영 연장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향후에도 안정적이고 고도화된 운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SONGDO
글로벌 네트워크

글로벌 K-컬처 센터
(인천글로벌캠퍼스 게임 및 영상학과)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에 둥지를 튼 연구·교육 기관으로, 한국의 문화적 자산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요람이다. 게임, 미디어 콘텐츠, K-팝,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연구 프로젝트와 산학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단순한 콘텐츠 소비 단계에 머물지 않고 학술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으며, 향후 청라 영상문화복합단지 등과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송도 컨벤시아

국제 마이스(MICE) 산업의 중심지로서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경제협력 등 굵직한 국제회의를 잇달아 유치하며 위상을 높이고 있다. 연간 100만 명이 넘는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외국인 방문객 수가 전년 대비 30% 이상 가파르게 성장하며 글로벌 비즈니스의 거점임을 증명했다. 올해는 국제치안산업대전, 대한민국 드론박람회, 로보컵 등 수백 건의 대형 전시와 행사가 예고되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생산기지를 넘어,
산업 생태계를 완성하는 송도 바이오

글로벌 생산 역량, 연구개발 인프라, 소재·부품·장비 기업, 그리고 바이오 스타트업을 키우는 K-바이오 랩허브까지. 송도는 이제 글로벌 기업의 집적을 넘어, 연구에서 생산, 창업과 기술사업화까지 하나로 연결되는 '완결형 바이오 생태계'를 향해 진화하고 있다.

IFEZ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

2010년
5만 리터

2015년
33만 리터

2020년
56만 리터

2025년
103만 **5,000**리터

2026년
115만 **5,000**리터(예상치)

2030년
214만 리터(예상치)

ISSUE 1

송도 바이오 산업 미래 전략, 바이오 클러스터의 확장

송도국제도시가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공장 신규 가동에 힘입어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생산 기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선도 기업의 활약으로 2025년 총 생산능력 103만 5천 리터를 달성했으며, 2026년 말 롯데바이오로직스 1공장이 완공되면 115만 5천 리터에 도달할 전망이다. 나아가 2030년에는 단일 도시 세계 최대 규모인 214만 리터라는 압도적 생산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러한 양적 성장은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기점으로 한 단계 도약한다. 인천경제청은 송도의 R&D·생산 역량을 주축으로, 인천공항 인근 영종국제도시의 신규 바이오 산업단지와 남동산단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거점을 하나의 벨트로 묶는 바이오특화단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공급망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로의 도약을 본격화하며, 전 세계 바이오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독보적인 위상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SSUE 2

교육·연구·생산의 산업 생태계 구축, 글로벌 바이오 혁신 허브로 도약하는 송도

단순 제조 기지를 넘어 교육·연구·산업이 선순환하는 완성형 생태계 구축도 순항 중이다. 2025년 연세대 국제캠퍼스에 개소한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는 정부 주도로 설립된 아시아 최초의 전문 교육 기관으로, 매년 2,000여 명의 바이오 현장 실무 인력을 배출하며 핵심 인적 자원 공급처 역할을 수행한다. 여기에 총 사업비 2,173억 원이 투입되는 'K-바이오 랩허브'가 행정절차를 마치고 착공을 가시화하며 생태계의 내실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도 연세대 부지에 조성될 이 시설은 단순 연구 공간을 넘어 전용 연구실과 사무 공간(오피스) 등 인프라를 구축해 스타트업의 기술 사업화와 창업을 든든히 지원하는 앵커시설로 기능하게 된다. 특히 유망 기업들이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방위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우수한 인재 육성과 스타트업의 혁신,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생산 네트워크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송도는 이제 지속 가능한 바이오 혁신 허브로 거듭나는 중이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바이오 생태계의 미래가 이곳 송도에서 완성되고 있다.

SONGDO BIO NOW!

CELLTRION
—
총 25만 리터
신규 완제의약품(DP)
공장 건설 중(2026년 완공)

SAMSUNG BIOLOGICS
—
총 78만 5,000리터
제2바이오캠퍼스
(5·6·7·8공장) 순차 건립 예정

LOTTE BIOLOGICS
—
총 12만 리터
2·3공장 순차 건립 예정

SK bioscience
—
글로벌 R&PD 센터로
본사와 연구소 이전 완료

SARTORIUS
—
송도5공구에 생산·연구시설
건설 중(2027년 완공)

IFEZ GLOBAL CORE

Third. 글로벌 인재를 머물게 하는 도시의 힘, 정주 환경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향해 거침없이 전진하는 IFEZ. 그 눈부신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은 무엇일까. 세 번째로 주목한 동력은 글로벌 인재를 끌어당기는 '지속 가능한 정주 환경'이다. 이번 호에서는 의료·교육·환경·문화 등 IFEZ의 정주 경쟁력을 구체적인 숫자 데이터를 통해 직관적으로 짚어본다.

※ 2025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참고

CARE 의료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초고령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최첨단 미래형 의료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다. 청라의료복합타운(서울아산병원 청라)과 토목 공사가 한창인 송도세브란스병원이 대형 종합병원으로 건립되어 고품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라 의료복합타운 조성

총 사업비 약 2조 4,040억 원

면적	280,336m²(약 84,800평)
규모	800병상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

면적 85,950m²(약 26,000평)

규모	800병상(지하 3층, 지상 13층)
완공	2026년 12월

EDU 교육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인 IFEZ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 인프라를 자랑한다. 청라 달튼외국인학교와 채드윅 송도국제학교, 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를 비롯해 한국뉴욕주립대 등 5개 외국대학교가 둥지를 틀며 동북아 최고의 글로벌 교육 거점으로 도약했다.

2025년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 기획

한국스탠포드센터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한국뉴욕주립대학교	마린유겐트코리아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
커넥티드카 사이버 보안	해조류 기반 지속가능 섬유 플랫폼	뉴로모픽 AI SoC 기반 바이오 의료기기	AI-IoT 해조류 양식 및 바이오 리파이너리 시스템	AI 스마트 시력교정 컨텍트렌즈 및 안경	웨어러블 초음파 근기능 센서 패치

GREEN 환경

전국 최초의 수(水)순환 체계를 통해 송도 워터프런트를 구축하고, IFEZ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도심 속 휴식과 치유의 공간인 공원과 녹지를 촘촘히 조성하고 있는 IFEZ. IFEZ는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저탄소 도시를 실현해나가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

총 사업비 6,900억 원

수로길이	21.17km
수로폭	40~500m

IFEZ 내 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1,252.2t CO_2

투입예산	3,188백만 원
주택 지원	625가구
공동주택 지원	3개소

IFEZ 내 공원 및 녹지

총 면적 약 25,067천 m²

공원	총 221개소(19,960천m²)
녹지	총 407개소(5,107천m²)

CULTURE 문화

IFEZ는 일상 속 문화적 여유를 더하는 품격 있는 도시를 지향한다. 아트센터인천 2단계 건립을 통해 오페라하우스와 아트&테크센터가 융합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 중이며, 송도국제도서관과 영종 하늘문화센터 운영으로 삶 속으로 스며드는 문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송도국제도서관

방문객 수

평일 평균	3,148명
주말 평균	7,965명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전 세계 문자자료

건 수	244건
점 수	543점

아트센터인천

공연·교육

기획공연	약 35회
예술교육 아카데미	총 180회

영종 하늘문화센터

(단위 : 명)

ifez News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IFEZ의 활동

IFEZ는 다각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글로벌 톱 텐 도시로 도약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IFEZ의 활동을 소개한다.

1

인천시·인천경제청, 영종에 아시아 최대 '항공 MRO 클러스터' 조성 가속

영종국제도시가 아시아 최대 항공정비(MRO) 거점으로 도약한다. 인천시 산업입지심의회는 최근 대한항공의 영종항공 일반산업단지 입주를 위한 사업계획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심의 통과로 대한항공은 운북동 일원 5만 692㎡ 부지에 약 1,500억 원을 투입해 첨단 엔진·부품 정비 공장을 건립할 수 있게 됐다.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는 2030년에는 연간 엔진 정비 생산량이 현재 88대에서 502대로 약 5.7배 급성장하며, 2,000명 이상의 항공 전문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경제청은 산업단지 내 유치업종 확대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등 대한항공 입주를 위한 행정 지원 사격을 아끼지 않았다. 이후 세부 설계를 거쳐 2029년 착공, 2031년 본격적인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대규모 MRO 생태계 집약을 발판 삼아 영종을 고부가가치 항공산업의 국가적 전진기지로 완벽히 안착시킬 계획이다.

2

인천경제청-하나금융, 15년 신뢰의 결실 '그룹 헤드쿼터' 청라 준공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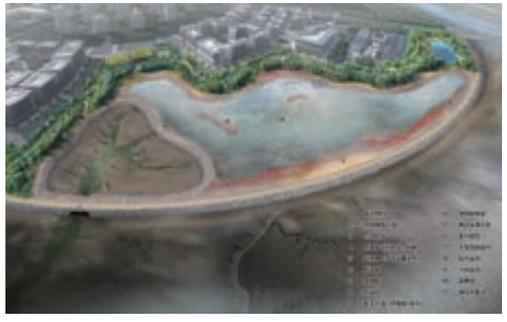
청라국제도시 하나드림타운의 핵심이자 대장정의 마침표인 하나금융그룹 본사 '그룹 헤드쿼터(HQ)'가 지난 5월 21일 준공됐다.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가 본사를 서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최초의 사례로,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이전 절차가 시작된다. 연말까지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등 총 10개 관계사의 임직원 2,200여 명이 순차적으로 이주를 마칠 예정이다. 기존 통합데이터센터와 하나글로벌캠퍼스 인력까지 합산하면 청라에만 약 4,000명 규모의 대규모 금융 클러스터가 형성된다.

청라국제도시역 인근에 위치한 그룹 헤드쿼터는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지역 상생을 상징하는 1.1km의 나선형 보행 램프 등 독창적인 건축미를 자랑한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본사 이전을 발판 삼아 청라를 핀테크와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이 집적된 글로벌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3

인천경제청, 글로벌 친환경 생태 거점 '송도국제에코센터' 조성 박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 G타워에서 '송도국제에코센터 조성사업 추진 TF' 회의를 개최하고, 유관기관(부서) 간 협력체계 내실화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송도 11공구 개발사업과 연계해 추진 중인 에코센터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송도국제에코센터는 11-2공구 북측 연구단지 인근에 인공습지를 포함한 생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생태·환경·관광·교육 기능이 융합된 국제적 수준의 친환경 거점을 구축해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런던·홍콩 등 해외 우수 습지센터 조성 사례 ▲극지 동물 보호구역 관리 기법의 국내 적용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글로벌 모델을 구체화하고,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의 완성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4

경원재 바이 워커힐, 호텔 등급 심사서 '최고 등급 5성급' 재인증 획득

송도국제도시의 대표 랜드마크인 한옥 호텔 '경원재 바이 워커힐'이 최근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호텔 등급 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5성급을 재인증받았다. 이번 재인증은 현장 및 불시 평가 합산 점수의 90% 이상을 획득한 결과로, 특히 지난해 운영사 변경 이후 추진해 온 프리미엄 리브랜딩과 서비스 품질 강화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원재는 그동안 시설 전반의 고도화를 진행하며 ▲국가무형문화재 최기영 명장 협업 작품 설치 ▲로비 및 객실 환경 업그레이드를 완료했다. 특히 핵심 변화인 자체 레스토랑은 한옥의 정취를 살린 프리미엄 공간 '다이닝 송'으로 새롭게 리뉴얼해 올해 블루리본을 획득하는 등 미식 경쟁력을 강화했다. 인천경제청은 "경원재의 5성급 재인증은 송도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인프라의 독보적인 경쟁력을 입증한 성과"라며, "전통 한옥의 가치와 현대적 서비스가 결합한 글로벌 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ifez News

5

인천경제청, K-바이오 랩허브 행정절차 마무리… 하반기 착공 청신호

송도 7공구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부지에 추진 중인 국가 바이오 창업 지원 핵심 인프라 'K-바이오 랩허브' 건립 사업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 가시권에 들어왔다. 총사업비 2,173억 원이 투입되는 이 시설은 지하 1층~지상 9층 규모로 조성되며 오는 2028년 말 준공이 목표다. 지난 4월 조달청에 공사 계약을 의뢰해 현재 원가 검토가 진행 중으로, 이후 입찰공고와 사업자 선정을 거쳐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중소벤처기업부, 연세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다지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바이오 스타트업들은 연세대 내 임시 공간에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랩허브 준공 시 전용 연구실 입주와 고도화된 첨단 장비를 지원받게 된다. K-바이오 랩허브는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와 연계해 스타트업 육성, 기술 사업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아우르는 미래 바이오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완성될 전망이다.

6

인천경제청, 청라하늘대교 개장 앞두고 유관기관 합동 안전훈련 전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하늘대교 관광시설의 정식 개장을 앞두고, 고층 전망대 비상상황에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 실전 훈련을 지난 5월 6일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인천관광공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청라하늘대교 관광시설 중 전망대와 친수공간은 5월 7일 문을 열었으며, 액티비티 시설인 엣지워크는 5월 15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합동 훈련팀은 고층 전망대라는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비상시 시민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상황 전파 및 초기 대응 ▲출동 구조와 화재 진압 ▲승강기 비상탈출 등 단계별 사고 처리 과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실전 대피 훈련을 통해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개장 전후로 만반의 안전 태세를 확인한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쾌적한 관광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7

인천경제청, 미래차 사이버보안 인증평가 지원사업 공모 선정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글로벌 규제 대응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평가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국제 자동차 보안 규정(UN R155)의 시행 등 글로벌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직접지원사업이다. 오는 2029년까지 총 2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청라 로봇랜드 내에 관련 시험·평가 인프라가 조성된다.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구축해 온 1단계 커넥티드카 인증평가센터와 올해 마무리되는 2단계 무선통신기술 시스템에 이어, 이번 보안 인프라 확장을 통해 통신과 보안을 모두 아우르는 '미래차 전주기 시험·평가 체계'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사이버보안 관리체계(CSMS) 구축 컨설팅 ▲재직자 맞춤형 보안 교육 ▲시험·평가 지원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을 본격 추진한다. 인천경제청은 "인천을 미래차 사이버보안의 국제 거점으로 육성하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인증 비용 절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8

인천경제청, 공동주택 디자인 혁신 위한 '경관가이드라인' 본격 시행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공동주택의 획일적인 경관을 개선하고 창의적인 도시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기 위해 'IFEZ 공동주택 경관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 그동안 공동주택은 IFEZ 건축물의 약 60%를 차지하며 도시 경관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단조로운 배치와 빽빽한 주거동으로 인한 위압감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기존의 피상적인 지침을 전면 개정해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할 '의무지침'과 설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권장지침', 창의적 디자인 유도를 위한 '특화디자인 인정기준'으로 구성된 3단 구조의 경관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시각적 개방감을 위한 주거동 최대 장변 길이 50m 이하 제한 ▲스카이라인 변화를 위한 동별 높이 차 25% 이상 확보 등 의무 지침을 설정했다. 또한 특화 발코니나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을 도입하는 경우 규제를 완화하는 특화디자인 인정기준도 마련했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인 경관 관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ifez News

9

인천경제청, 전국 경제자유구역청 최초 ‘ESG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계 조성과 책임 행정 강화를 위해 전국 경제자유구역청 중 최초로 ‘2025 IFEZ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글로벌 ESG 표준인 GRI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탄소중립 실천, 시민 삶의 질 제고, 안전한 도시 운영 등 그간의 주요 ESG 경영성과와 노력을 종합적으로 담아냈다. 인천경제청은 글로벌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한 미래 창조를 미션으로 삼고, ▲탄소중립 스마트 환경 도시기반 마련 ▲안전하고 포용적인 시민 중심 도시구현 ▲혁신 성장 및 기업 ESG 상생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3대 전략을 중심으로 12개 세부 과제를 도출했으며 실행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ESG 규제 심화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맞춤형 컨설팅과 인증 취득 등 선제적 지원 체계를 강화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앞으로도 경제적 성장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 모델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10

아트센터인천, 지역 예술단체 상생 축제 ‘클래식 인사이트’ 개최

아트센터인천이 우수한 지역 연주단체를 발굴하고 시민들에게 친숙한 클래식 무대를 선사하는 ‘클래식 인사이트’ 시리즈를 이어간다. 올해 첫 무대는 인천시 지정 전문예술단체인 ‘명 앙상블’이 장식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정통 클래식과 대중적인 음악을 아우르는 레퍼토리를 선보인 이번 공연은, 특히 인천시 ‘천원 문화티켓’ 사업이 적용돼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등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클래식 인사이트’는 하반기에도 풍성한 라인업으로 관객들을 찾아간다. 6월 오페라 숏츠 공연인 엘캄머의 <사랑의 피리>를 시작으로, 7월 인천 클라리넷 앙상블의 전래놀이 콘서트가 펼쳐지며 8월과 9월에는 각각 i-신포니에타와 인천시티오페라단의 무대가 예정되어 있다. 아트센터인천은 누구나 부담 없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 예술인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상세 공연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1

제3기 글로벌 기자단 출범, 다국어 콘텐츠로 세계와 소통 강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5월 7일 G타워 2층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서 ‘제3기 IFEZ 글로벌 기자단’ 발대식을 열었다. 총 65명이 지원해 역대 최다 지원을 기록한 이번 제3기 글로벌 기자단에는 10명이 최종 선발됐으며, 선발된 기자단원들은 다양한 국적과 언어를 기반으로 IFEZ의 정책과 투자환경, 관광자원 등을 세계에 알리는 글로벌 홍보 채널로 활동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기자단 대표 선서, 자기소개 및 간담회, 기념 촬영, 오리엔테이션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기자단원들은 IFEZ 홍보관 견학과 수상택시 체험, 센트럴파크 팸투어에 참여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주요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기자단원들은 각자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통해 월 1회 이상 IFEZ의 주요 행사와 투자환경,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다국어 콘텐츠를 제작해 소개한다.

12

인천시, 재정혁신대상 수상기관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선정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재정혁신대상 수상 기관으로 선정되며 올해 재정 혁신을 가장 성공적으로 거둔 성과를 인정받았다. 인천경제청은 점차 늘어나는 대행·위탁사업비의 재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진단하고 효율적인 개선안을 도출해 냈다. 이를 통해 예산을 크게 절감하고 재정 건전성을 다지는 데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한편, 우수상을 차지한 중구는 인천국제공항지구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을 도입, 공공 재정의 부담을 덜고 시 세입을 확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외에도 시징수담당관실과 매립지정책과, 인천시설공단 등 4개 부서 및 기관의 혁신 사례가 장려상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인천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건전한 재정 기조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24년부터 재정혁신대상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신승열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발굴된 우수한 재정 혁신 사례들이 시정 전반으로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Interview No. 14

IFEZ 내 국제기구를 만나다 <ESCAP>

UNESCAP(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UN 기구다. 중국, 일본, 한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몽골, 러시아 6개국을 포용하는 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의 강볼드 바산자브(Ganbold Baasanjav) 대표는 "동북아시아 6개국은 나라 간에 얽힌 아픈 역사에도 미래세대를 위한 강한 연대심을 지니고 있다"면서, "회원국 간의 공동 현안 발굴과 미래를 위한 대안 마련에 합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용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국제협력특보는 송도신도시 G타워에서 강볼드 바산자브 대표를 만나 대기오염 사태와 동북아지역 환경 프로그램(NEASPEC)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신용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 (IFEZ)
국제협력특보

강볼드 바산자브
(Ganbold Baasanjav)
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대표

신용석 대표께서는 한국 주재 몽골대사를 역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관으로서의 경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강볼드 1982년부터 1988년까지 6년간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에서 한국어학과를 이수했습니다. 이후 평양과 하노이 주재 몽골대사관에서 근무했고, 2013년부터 5년간은 한국 주재 몽골대사로 복무했습니다. 그 뒤 2019년부터 ESCAP 동북아 지역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신용석 한국어를 격조 있는 표준어로 유창하게 구사하십니다.

강볼드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 시절부터 한국어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평양과 서울에서 10여 년간 근무한 데 이어 지금은 인천에서 일하고 있으니, 도합 15년 가까이 한국어권에서 지내고 있는 셈입니다. 무엇보다 몽골어와 한국어가 같은 우랄 알타이 언어권에 속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신용석 대한민국 인천에 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가 자리 잡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강볼드 인천에 동북아사무소가 설립된 것은 역내 유엔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매우 역동적이지만 지정학적으로는 복합적인 특성을 지닌 동북아 지역의 고유한 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인천이 최종 선정된 것은 다자주의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더불어,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 및 재정 지원이 뒷받침된 결과입니다.

특히 인천은 뛰어난 글로벌 접근성과 동북아 주요 도시들과의 근접성, 그리고 안전하고 현대적인 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어 국제 협력과 협의를 위한 이상적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도에 있는 여러 유엔 기구 및 국제기구들과 기능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동북아 지역 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2030 의제' 이행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석 동북아 지역은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국경을 넘어오는 월경성 대기오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강볼드 청정 대기 실현은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전역의 핵심 과제입니다. 현재 아·태 지역 인구의 92%에 달하는 약 40억 명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반면,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 지역의 대기질이 지난 10년간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실제로 동북아 지역은 초미세먼지(PM2.5) 등 주요 오염물질 저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는 각국이 산업, 교통, 주거 부문을 대상으로 강력한 대기오염 저감 정책과 규제 체계를 지속해서 시행해온 결실입니다. 물론 대기질 관리는 국경을 초월하는 월경성 오염 문제를 포함하여 매우 복합적인 과제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역내 협력은 청정 대기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사무소는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을 통해 6개 회원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NEACAP은 과학적 연구와 정책 대화를 연계함으로써 과학 기반의 정책 공조를 촉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북아 지역의 대기질 관리를 위한 협력적 접근 방식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신용석 동북아 지역 환경 프로그램(NEASPEC)의 중요한 성과는 무엇인가요.

강볼드 NEASPEC은 동북아 지역 환경 협력을 이끄는 유일한 포괄적 정부 간 협력체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NEASPEC은 유엔의 지원 아래 역내 환경 협력을 위한 중추적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NEASPEC은 동북아 지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하고 새로운 환경 현안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발전해 왔습니다. 현재는 대기오염, 생물 다양성과 자연 보전, 사막화 및 토지 황폐화, 해양 보호 구역, 저탄소 도시 개발 등 역내 전반을 아우르는 폭넓은 의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회원국들은 NEASPEC을 통해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 대화를 강화함으로써,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월경성 환경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NEASPEC은 복잡한 지정학적 여건 속에서도 역내 국가들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신뢰 구축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신용석 지난해에는 '동북아시아 대표 철새의 서식지 연결성 보전'에 관한 실행 파트너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EAAFP(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와도 협조 관계가 있는지요.

강볼드 ESCAP은 주로 NEASPEC의 '생물 다양성 및 자연 보전 프로그램'을 통해 EAAFP와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NEASPEC은 2007년 회원국들이 지정한 3대 대표 이동성 조류종인 두루미, 재두루미, 저어새의 보호를 지원해 왔으며, 이는 이들 종이 생태학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국경을 초월한 서식지 연결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ESCAP은 EAAFP 및 유관 기관들과 손잡고 동북아 지역의 철새 보호와 서식지 보전을 위한 역내 공조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석 중국과 일본도 ESCAP 동북아 지역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까.

강볼드 중국에서는 환경 분야와 회원국 간의 교통 연결성 관련 전문가 회의를 정기적으로 소집하고 있으며, 일본과도 환경문제, 특히 탄소중립 국제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중국과 일본의 외교 관계가 긴장 국면에 있어 정부급 인사들의 참여가 다소 제한되고 있는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신용석 인천광역시와의 협력관계는 어떠한가요.

강볼드 인천과는 저탄소 국제 포럼을 계속해서 회원국 주요 도시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축적된 경험을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국가들과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신용석 사막화 방지 정상회의도 정기적으로 열리고, 한국 시민단체에서도 몽골에 나무심기 운동을 몇십 년 전부터 계속해오고 있는데 실제 성과가 있는지요.

강볼드 한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식목 사업을 지속하고는 있지만, 기후변화와 가축 수 증가로 인해 눈에 띄는 성과를 내기에는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특히 방목하는 염소가 식물의 뿌리까지 먹어 치워 피해를 주는 데다, 나무를 심은 이후 소유권 관계가 불분명해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신용석 오랜 시간 ESCAP 동북아 지역사무소의 귀중한 활동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SCAP

기관 성격 국제기구(UN 산하 지역위원회)
주요 역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지속가능발전, 경제 협력 및 환경·교통 정책 지원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175

ESCAP 홈페이지 바로가기

회색빛 빌딩 숲 사이
녹색의 행복을 전하다

잘 가꿔진 공원은 단순히 머무는 쉼터를 넘어, 도시의 품격과 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가까운 복지다. 회색빛 인프라 위에 녹색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광활한 공원을 시민들의 다정한 일상 공간으로 채워가는 환경녹지과 공원운영팀을 만났다.

글. 황예지 사진. 이덕재

THE KEY PLAYERS OF IFEZ

공원운영팀

조성을 넘어 '운영'으로,
일상 속 선복지를 실현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는 도심 속 고층 빌딩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독보적인 녹지 비율(32.4%)을 자랑한다. 향후 조성 중인 공원이 완공되면 주민 1인당 공원·녹지 면적은 90.6㎡에 달해 국내 신도시 중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된다. 환경녹지과 공원운영팀은 이 거대한 푸른 인프라를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는 것을 넘어, 시민이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경험과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조직이다. 과거의 공원 행정이 "공원을 어디에, 얼마나 만들 것인가"라는 하드웨어 중심의 구조였다면, 현재의 공원운영팀은 "이 공간 안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것인가"라는 운영 관점에 집중한다. 이들에게 공원녹지는 몸과 마음이 지치기 전에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예방적 차원의 '선복지(先福祉)' 공간이다. 팀은 소수의 인력으로 12개 주요 공원을 관리하는 행정적 한계를 넘어, 연간 약 40억 원 규모의 수익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다양한 문화 축제를 유치하는 등 공원의 공공적 가치를 시민에게 온전히 돌려주는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글로벌 마스터플랜 위에
생명을 불어넣는 소프트웨어

공원운영팀의 역할은 세계적인 마스터플랜의 철학을 계승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생태계로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구체화된다. 송도의 중심인 센트럴파크는 세계적인 설계사무소 KPF가 한반도 지형, 동서양의 조화, 생태, 해수 활용, 보행 중심이라는 5가지 핵심 철학을 담아 설계한 공간이다. 공원운영팀은 여기에 현대적인 운영 방식을 더해 도시의 생동감을 유지한다. 국내 최초의 해수 수로 위에 친환경 순수 전기추진 선박인 '센트럴커낼호'를 운항하고, 빌딩 숲 사이에서 사슴이 공존하는 생태적 풍경을 세심하게 돌보는 일은 마스터플랜을 살아 숨 쉬게 하는 구체적인 실천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리는 일방적인 보존을 넘어 도시의 자산이 시민의 라이프스타일과 유기적으로 맞물리도록 조율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공원은 단순한 풍경이 아닌 진화하는 도시의 가치로 기능하게 된다.

자연과 삶이 결합하는
미래형 친수 도시의 지향점

공원운영팀이 그리는 미래는 공원의 고유한 공공성을 단단하게 지키면서도, 주변 경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이색 카페와 체류형 인프라를 확대해 도시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것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워터프런트 사업'과의 유기적인 연계는 송도의 공원 생태계를 수상 액티비티와 해양 레저가 결합한 고차원적 친수 공간으로 확장하는 핵심 계기가 될 것이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푸른 녹지와 수변이 어우러진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간, 시민들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자신이 사는 도시에 대한 깊은 자부심을 체감하게 된다. 주말 아침의 역동적인 조깅 트랙에서 해 질 무렵 낙조의 산책로로, 또 지친 일상을 달래는 사색의 공간으로 변화하는 송도의 공원은,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것을 넘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완벽하게 완성해 나가고 있다.

미추홀공원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는 공원운영팀

송도 공원 테마별 가이드

공원운영팀이 시민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송도 공원 테마별 가이드'를 제안했다. 국제도시 송도의 12개 주요 공원들의 특성과 테마를 살펴보고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공원을 즐겨보자.

Theme 01
사색과 치유

다정한 위로를 건네는 가족 휴식형 쉼터
해돋이·미추홀·새아침·신송·글로벌파크, 랜드마크시티 3호는 갯벌문화관, 어린이도서관, 실버카페가 어우러져 전 세대에게 사랑받고 있다. 맨발 황톳길과 마사토길은 완벽한 웰니스 공간을 선사한다.

Theme 02
관광·레저

역동적인 활력과 액티비티의 중심
센트럴파크·달빛공원·랜드마크시티 1호 체육공원은 전기 선박과 문보트가 떠다니는 해수 수로, 17면의 테니스장과 18홀의 파크골프장, 그리고 국제규격 RC스포츠 경기장 등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레저와 스포츠 활동이 가능하다.

Theme 03
문화·축제

도시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글로벌 축제 거점
달빛축제공원은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송도맥주축제 같은 대형 지역 축제와 K-POP 쇼케이스 등이 열리는 곳으로, 다채로운 야외 문화 행사를 치러내는 송도의 대표 축제 공간이다.

Theme 04
해안·조망

서해의 낙조와 바다를 품은 낭만적인 공간
솔찬공원·랜드마크시티 1·3호 수변공원은 광활한 서해 바다와 인천대교를 조망하며, 복합문화시설 및 수변 스탠드에서 영감과 감성을 채울 수 있는 로맨틱한 친수 공간이다.

MINI INTERVIEW

나에게 공원이란 [ ]다.

[문화발전소]

공원은 단순히 나무가 심어진 조용한 쉼터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즐거움과 예술, 그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만들어지는 거대한 '문화발전소'입니다. 저희 공원운영팀은 이 공원문화발전소가 365일 시민들의 일상에 행복 에너지를 전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간을 가꾸고 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곳. 달빛축제공원의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과 송도맥주축제, 미추홀공원의 전통 체험 등 공원문화발전소의 에너지가 IFEZ를 더욱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노승운 팀장

[전장의 최전선]

공원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살아 있는 공간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계절과 날씨에 따라 신경 써야 할 일도 많고, 예상치 못한 문제도 자주 발생합니다. 그만큼 늘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하는 모습을 볼 때면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저에게 공원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매일 고민하고 움직이는 현장, 바로 '전장의 최전선'입니다.

김대연 주무관

[소통]

저에게 공원은 조경을 전공한 뒤 전문성을 살려 일하고 있는 소중한 현장입니다. 무엇보다 제가 하는 일에 따라 시민들의 반응이 바로 나타나는 공간이라 늘 책임감을 느낍니다. 단순한 건의부터 오랜 민원까지 다양한 의견을 접하지만, 시민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공원은 조성으로 끝나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공원은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손주동 주무관

Insight in site, IFEZ

IFEZ는 세계와 연결되는 관문이자 글로벌 혁신의 중심지다. 이곳에는 유엔(UN) 기구부터 국제기구, 인천글로벌캠퍼스(IGC), 글로벌센터까지 각 분야를 선도하는 기관과 단체들이 자리하고 있다.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IFEZ의 주요 기관과 단체들의 소식을 전한다.

애니모션텍, 송도에 첨단 레이저·모션제어 생산기지 준공

첨단 자동화 장비·부품 전문 기업인 애니모션텍(주)이 송도국제도시에 신사옥을 준공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4월 15일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애니모션텍 신사옥에서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건립된 송도 신사옥은 부지 5,414㎡ 규모로, 미국 에어로텍(Aerotech)사와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글로벌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추진됐다.

새로운 생산기지는 고정밀 모션제어 및 레이저 가공 핵심 부품의 제조시설과 연구개발(R&D) 기능을 모두 갖춘 첨단 복합 거점으로 운영된다. 애니모션텍은 이를 바탕으로 기술 고도화에 주력하여 그동안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첨단 산업용 장비 부품의 국산화를 이끌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한층 확대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애니모션텍이 송도국제도시의 기술 생태계와 시너지를 발휘해 첨단 제조·장비 산업의 새로운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갈 전망이다.

애니모션텍 주식회사 ANI MOTION TECH LTD.

업종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제품/사업 반도체장비 조립,제조/무역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187번길 53

고객이 직접 고르는 한정판… ‘나만의 BMW 에디션 만들기’ 진행

BMW코리아가 고객 참여형 온라인 한정판 프로젝트 ‘2026 나만의 BMW 에디션 만들기’를 진행했다. 고객이 직접 선호하는 모델과 세부 사양을 선택해 투표하면, 최종 인기 조합을 실제 한정판 모델로 출시하는 방식의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젝트 대상은 BMW M 하이 퍼포먼스 모델 7종으로, M2 쿠페를 비롯해 M3 컴페티션 M xDrive, M3 컴페티션 M xDrive 투어링, M4 컴페티션 M xDrive 쿠페, M4 컴페티션 M xDrive 컨버터블, M5, M5 투어링이 포함된다. 참여 고객은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휠, 파츠 항목을 조합해 자신만의 BMW를 구성할 수 있으며, 모델과 옵션에 따라 최대 1,002가지 조합이 가능하다. 올해는 고객이 선택한 사양이 차량 이미지에 실시간 반영되는 ‘컨피규레이션’ 기능도 새롭게 도입됐다.

BMW코리아는 지난해 처음 진행한 같은 프로젝트에서 약 6,000건의 투표를 기록했으며, 고객 투표로 선정된 한정판 모델 3종이 모두 출시 1분 이내 완판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투표는 6월 7일까지 BMW 샵 온라인에서 진행하였고, 상위 3개 모델 조합은 연말 실제 온라인 한정 에디션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BMW GROUP

업종 자동차 신품 판매업
제품/사업 승용차, 부품 판매, 수입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0(BMW 코리아)

GCF·GGGI 첫 공동 컨퍼런스 개최… 글로벌 기후 협력 플랫폼 역할 강화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가 설립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공동 컨퍼런스를 열고 글로벌 기후 협력 확대에 나섰다. GGGI는 정책 설계와 사업 전환 및 투자를, GCF는 기후 재원 지원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로, 한국은 서울(GGGI)과 인천 송도(GCF)에 각각 두 기관 본부를 둔 유일한 국가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 기술, 금융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글로벌 기후 협력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난 5월 21일 열린 이번 행사는 개발도상국 기후 프로젝트 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공유하고,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의 글로벌 기후사업 진출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그동안 정책 설계와 기후 재원 집행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기존 글로벌 기후 협력 체계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첫 단추로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실무 세션에서는 한국 기업 및 금융기관이 국제기구의 네트워크와 재원을 활용해 개도국 기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소개됐다. GCF는 대출, 지분투자, 보증, 보조금 등 다양한 금융 수단을 통해 민간 참여 기반을 넓히고 있으며, GGGI 역시 사업 발굴과 제도 설계를 지원하며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이번 공동 컨퍼런스를 통해 양 기관은 글로벌 기후사업 협력 확대와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적극 공유해 나갈 방침이다.

GREEN CLIMATE FUND

기관 성격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금융 메커니즘 운영 기관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인천글로벌캠퍼스, 몽골 유학생 유치 확대 나서

인천글로벌캠퍼스(IGC)가 몽골 고등교육 시장을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 유치 확대에 나섰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은 지난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해 다각적인 유치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IGC가 몽골 시장에 주목한 배경에는 역동적인 인구 구조와 높은 K-문화 호감도가 있다. 몽골은 전체 인구의 약 46%가 25세 이하인 젊은 국가로 교육열이 매우 높지만, 자국의 고등교육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여기에 연간 방한 몽골인이 약 17만 6,000명에 달하는 등 활발한 인적 교류도 한몫했다.

대표단은 현지에서 안전한 한국에서 생활하며 미국 및 유럽 명문대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차별화된 강점을 내세워 큰 호응을 얻었다.

대표단은 몽골 초·중·고등 교육총국과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울란바토르 바양골 구청과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바양골 구청과는 입학 정보 교류 및 소득 연계형 장학금 매칭 등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IGC는 오는 6월 몽골 교육 관계자들의 송도 캠퍼스 답방 시찰을 진행하고, 10월에는 몽골 현지 대규모 대학박람회에 공동 참가해 유치 성과를 이어갈 계획이다.

콜롬비아와 백신 기술이전 협력, 중남미 시장 확대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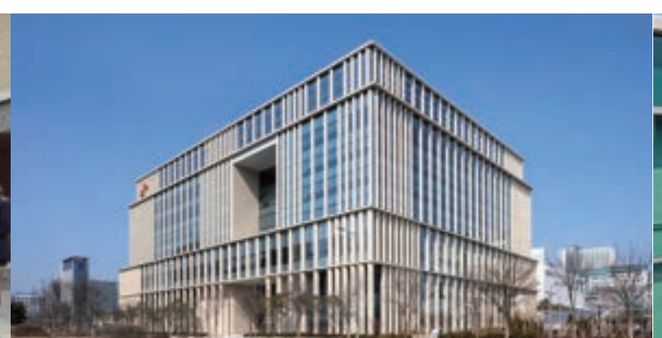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콜롬비아 국영 제약기업 'VECOL'과 백신 기술이전 및 현지 생산 협력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중남미 시장 확대에 나섰다. 이번 협력은 단순 제품 수출을 넘어 기술이전과 현지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글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의 일환이다. 이번 계약은 콜롬비아 보건사회보호부가 주도하고 국립보건원(INS)과 VECOL이 공동 추진하는 국가 백신 자국화 사업이다. 향후 10년간 약 2억 6,000만 달러(약 3,500억 원)가 투입되는 대형 국책 프로젝트로, 콜롬비아 정부는 약 4년간의 검증 끝에 SK바이오사이언스를 최종 파트너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생산 운영 기술 이전을, VECOL은 시설 설립과 인허가 및 국가예방접종사업 연계 등을 담당한다. 초기 기술 이전 대상은 자체 개발 수두백신 '스카이바리셀라'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향후 협력 제품군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해당 시설을 활용해 콜롬비아 정부가 도입할 차기 제품군에 대한 우선 협상권도 확보했다. 이와 함께 범미보건기구(PAHO)로부터 콜롬비아향 스카이바리셀라 95만 도즈의 연내 공급 요청을 받아, 이 중 60만 도즈의 최종 구매 주문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IGC INCHEON GLOBAL CAMPUS

재단/법인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 119

SK bioscience

업종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제품/사업 백신 제품, 제제 제조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구단지로 38



신약 개발부터 스마트공장까지… AI 기반 경쟁력 강화

셀트리온이 신약 개발과 제조, 사무 등 3대 주요 업무 영역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며 글로벌 제약시장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현재 AI 적용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신약 개발이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AI 기반 신약개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생물정보학(BI)과 AI 기술을 활용한 후보물질 발굴 및 검증 업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신약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 부문에서는 인천 송도에 건설 예정인 신규 원료의약품 4·5공장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기반 스마트공장 구현에 속도를 낸다. 자율이송로봇(AMR), 자동화 물류 창고, 지능형 로봇팔과 협동로봇, 제조 관리 소프트웨어 등을 대거 도입해 공장 자동화 수준과 생산 효율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사무 부문에서도 데이터 분석과 인사이트 도출 등에 AI를 적극 활용 중이며, 올해를 기점으로 업무 자동화 범위를 본격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연구개발부터 생산, 사무 환경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AI 혁신을 통해 글로벌 탑티어 제약사로서의 경쟁력을 굳혀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GCF·국제학교, 저소득 독거노인 위한 식품 기부행사 진행

인천광역시는 지난 5월 20일 남동구 노인복지관에서 녹색기후기금(GCF), 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CMIS)와 함께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제2회 GCF 푸드 드라이브(식품 기부)'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시가 국제기구의 자원을 지역 돌봄으로 연결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한 대표적인 상생 협력 사업이다.

기부 물품은 지난 3월 한 달간 GCF 임직원과 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 학생·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다. 지난해보다 규모가 커진 총 52박스 분량으로, 통조림과 멸균우유 등 어르신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식료품 1,714점이 모였다. 이 물품들은 남동구 노인복지관을 통해 지역 내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2013년 송도 G타워에 입주한 GCF는 현재 400여 명의 글로벌 인재가 근무 중인 기후위기 대응 관련 국제기구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인천시 환경국장은 "올해도 따뜻한 마음을 모아준 GCF 임직원들과 국제학교 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CELLTRION

업종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제품/사업 의약품(램시마, 트룩시마, 허쥬마) 연구, 개발, 제조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23

인천광역시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ifez — SUMMER NIGHTrip

낮보다 더 매력적인
IFEZ의 한여름 밤 여행

**IFEZ의 여름은 밤이 시작되면서 진짜 매력을 드러낸다.
화려한 도심 야경이 잔잔한 호수 위로 내려앉고,
가슴 속까지 시원하게 만드는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시간.
한여름 밤의 무더위를 식혀줄
여행의 설렘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IFEZ TRIP
영상 바로가기

1

송도 센트럴파크

ⓒ사진 : 이스트보트하우스

이스트보트하우스(수상레저)

센트럴파크의 밤을 조금 더 특별하게 기억하고 싶다면
이스트보트하우스에서 운영하는 수상레저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지다. 특히, 보트체험이 가능한데, 전자동으로
움직이는 보트 덕분에 더운 여름밤에도 땀 흘릴 걱정 없이 물 위를
유유자적 즐길 수 있다. 이스트보트하우스에서는 패밀리보트,
신데렐라보트, 문보트 등 개성 넘치는 다양한 모양의 보트를
운영하고 있으니 꼭 한번 체험해보자.

운영시간 평일 10:00~19:00 / 주말 10:00~21:00
문의 032-831-4609

웅장한 마천루가 낮의 경관을 책임졌다면,
밤의 센트럴파크는 빌딩 창문 사이로 하나둘
새어 나오는 불빛들이 까만 밤하늘을 수놓으며
거대한 스크린으로 변모한다. 국내 최초로
바닷물을 끌어와 조성한 친환경 해수 공원인
만큼, 물길을 따라 걷는 밤 산책도 남다르다.
총 1.8km에 달하는 인공수로를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이 형형색색의 불빛을 뿜어내고,
이 빛이 잔잔한 호수 위로 내려앉으면 사방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미디어아트 행사장처럼
환상적이다. 답답한 에어컨 바람에서 벗어나
자연을 벗 삼은 도심 속 힐링을 고민한다면 송도
센트럴파크가 제격인 이유다.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0

2

청라호수공원 음악분수

송도가 세련된 감성을 자랑한다면, 싱그러운 숲 향기가 감도는 청라호수공원은 오감을 만족시키는 시원한 휴식처를 제공한다. 이곳에서는 매년 여름밤마다 화려한 조명과 신나는 선율에 맞춰 춤추는 음악분수 공연이 펼쳐지며 도심의 밤을 흥겹게 채운다.
공연이 시작되면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길이 120m, 최대 높이 75m 규모의 물줄기가 시원하게 치솟고, 화려한 영상과 레이저, 무빙라이트가 감탄을 자아낸다. 캄캄한 도심 속을 아름다운 물빛과 리듬으로 가득 채우는 장관에 더위도 잊고 즐거움을 만끽하게 된다. 친구나 가족, 연인과 함께 삼삼오오 모여 가벼운 마음으로 나서는 여름밤 나들이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선사한다.

위치 인천광역시 서해구 크리스탈로 59

청라루(青蘿樓)

청라국제도시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는 '청라루'도 절대 놓칠 수 없는 명소다. 드라마 '더 글로리'의 촬영지로도 잘 알려진 이곳은, 밤이 되면 웅장한 건축물 위로 따뜻한 조명이 켜지며 한층 더 매혹적인 자태를 뽐낸다. 전통적인 공간이 주는 아늑함과 밤의 정취를 우아하게 즐기고 싶다면 청라루에 꼭 한번 방문해보자.

+info

운영기간 5월 1일~10월 4일 / 금, 토, 일 및 공휴일

운영시간 주간 12:20~13:00(5~10월)
야간 20:00~21:00(5월, 9월, 10월)
20:15~21:15(6월~8월)
※ 주간은 음악 없이 조명 연출만 운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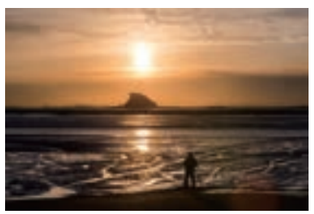
3

용유하늘전망대

영종도에는 하늘과 맞닿은 전망대에서 밤바다의 풍광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이 있다. 바로 따뜻한 불빛이 소용돌이치며 하늘로 향하는 '용유하늘전망대'다. 나무 위 새 둥지를 모티브로 세워진 이 원통형 구조물은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올 만큼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한다.
밤바다를 환하게 비추는 모습은 영종도를 밝히는 횃불 같기도, 길을 안내하는 등대 같기도 해 방문객을 양팔 벌려 따뜻하게 환대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전망대에 오르면 탁 트인 영종도 바닷가가 한눈에 펼쳐진다. 저 멀리 까만 바다 위로 촘촘히 내려앉은 작은 불빛들은 마치 밤하늘의 별빛을 옮겨놓은 듯 신비롭다. 가족, 혹은 연인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남기고 싶다면, 이번 여름밤에는 용유하늘전망대에서 바다의 정취를 한껏 머금어보자.

위치 인천광역시 영종구 덕교동 128-48

ⓒ사진 : 블로그 여행하는 써니



거잠포 해변

일몰 시간에 맞춰 발걸음을 옮겼다면 용유하늘전망대 바로 근처에 위치한 '거잠포 해변'으로 향해보자. 수도권에서 손꼽히는 일출·일몰 명소인 이곳에는 상어 지느러미를 닮아 독특한 실루엣을 자랑하는 섬, '매도랑'이 있다. 매도랑 너머로 붉은 노을이 내려앉으며 영종도 여름밤의 신호탄이 켜지는 순간은 놓치기 아까운 장관이다.

먹고, 찍고, 소장하는 ‘K-투어’ 루틴

2026 K-TOUR TREND

이제 관광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 현지인의 삶에 직접 접속하는 체험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2026년 한국을 찾은 여행자들은 감자탕 노포에서 먹고, 편의점 꿀조합을 찍으며, K-기념품을 찾아다니는 방식으로 한국의 일상에 깊이 스며든다. K-투어라는 렌즈를 통해, 현재 가장 사랑받고 있는 K-문화의 매력을 찾아보자.

Trend Keyword 1

Local Dive

단순한 관람을 넘어 현지인의 깊숙한 일상 속으로 뛰어드는 체험형 여행

불고기 말고 감자탕! 외국인이 찾은 ‘찐 로컬 바이브’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진짜’ 한국인처럼 즐기기 위해 향하는 곳은 감자탕집이다. 감자 없는 감자탕의 반전 매력에 놀라고, 등뼈 사이 살코기를 발라 먹는 ‘본즈 챌린지(Bones Challenge)’를 촬영한 뒤, 볶음밥으로 마무리하는 K-푸드 루틴을 완성한다. 2025년 외국인 카드 결제 데이터에 따르면 감자탕은 전년 대비 44.0%라는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며 ‘생활 밀착형 미식’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외국인이 뜨거운 국밥에 소주를 곁들이며 한국 특유의 ‘해장문화’를 경험하는 장면은 ‘보는 관광’을 넘어 현지인의 일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로컬 다이브(Local Dive)’ 트렌드의 흐름으로 읽힌다. 2026년에도 ‘K-국물’로 시작해 볶음밥으로 완성되는 감자탕 루틴은 지속될 전망이다.

Trend Keyword 2

Daily-cation

일상(Daily)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현지인처럼 먹고 쇼핑하며 일상을 복제하는 여행

미슐랭 대신 편의점? 2026 글로벌 여행자의 ‘마트어택’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나선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편의점이다. 한 손에는 SNS에서 본 ‘꿀조합’ 음료가 들려 있고, 매대 앞은 최신 먹거리를 기록하는 카메라 셔터 소리로 채워진다. 2026년 미식 관광의 트렌드로 떠오른 이른바 ‘마트어택(Mart Attack)’은 화려한 미식 대신, 일상 속 경험에 집중하는 ‘라이프시잉(Life-seeing)’ 트렌드를 상징한다.

특히 한국의 편의점은 나만의 레시피를 완성하는 콘텐츠 생산 공간이다. 관광객들은 바나나우유로 음료를 제조하고, 라면 조리기를 체험하며 쇼츠를 만들어 업로드하는 것이다. 거창한 기념품 대신 현지의 맛을 소장하고, 자신만의 미식 콘텐츠를 생산하는 이들의 발걸음은 오늘도 IFEZ의 편의점으로 향하고 있다.

Trend Keyword 4

Screen Tourism

미디어 스크린을 통해 K-팝 스타의 메이크업을 보고, 드라마 속 주인공의 라이프스타일을 간접 체험한 이들이 스크린 속 일상을 현실에서 그대로 복제하는 관광

Trend Keyword 3

Micro-tourism

화려한 랜드마크 중심의 관광을 넘어, 현지인의 생필품과 일상 소비문화를 콘텐츠로 향유하는 여행

K-기념품, 약국 러쉬, 올다무(올리브영, 다이소, 무신사)가 대세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삼삼오오 모여드는 곳은 면세점이 아닌 이른바 ‘올다무(올리브영·다이소·무신사)’와 골목 약국이다. 이들은 약국에서 국산 파스와 연고를 대량 구매하는 ‘약국 러쉬’에 열광하고, 올리브영에서 마스크팩을, 다이소에서 가성비 아이템을, 무신사에서 K-패션을 소비하며 쇼핑 루틴을 완성한다. 2025년 외래관광객 조사에 따르면 방한 여행 행태 중 ‘개별여행’이 78.8%를 차지했으며, 올리브영의 외국인 구매 금액은 전년 대비 53% 급증하며 가성비와 생활 밀착형 쇼핑의 위력을 입증했다. 이는 K-콘텐츠를 통해 한국인의 일상을 접한 개별 관광객들이 거창한 문화유산 탐방 대신 가장 소소하고 일상적인 재화를 목적지로 삼는 ‘마이크로 투어리즘’의 진화로 읽히고 있다.

IFEZ CULTURE

July+August

아트센터인천

클래식부터 재즈, 뮤지컬, 무용 등 인천 예술의 중심 '아트센터인천'에서 열리는 주요 공연 일정을 지금 소개한다.

M&M 시리즈 Ⅱ 〈구노의 장엄미사〉

공연일정 7월 4일 (토) 17:00
장소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관람시간 100분
티켓가격 R석 4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

옥탑재즈 III

공연일정 7월 10일 (금) 19:30
장소 아트센터인천 다목적홀
관람시간 100분
티켓가격 전석 2만 5천 원

인천시립교향악단 제445회 정기연주회 〈인천시향과 김대진〉

공연일정 7월 17일 (금) 19:30
장소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관람시간 약 90분
티켓가격 전석 1만 원

클래식 인사이트 III : 인천 클라리넷 앙상블 〈한국의 전래놀이 콘서트〉

공연일정 7월 18일 (토) 17:00
장소 아트센터인천 다목적홀
관람시간 90분
티켓가격 전석 1만 원

ACI x 인천시향 공동기획 〈조조무朝 클래식〉 III

공연일정 8월 20일 (목) 11:00
장소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관람시간 90분
티켓가격 전석 2만 5천 원

직장인을 위한 〈퇴근길 콘서트〉 III

공연일정 8월 26일 (수) 19:30
장소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관람시간 100분
티켓가격 전석 2만 원

아트센터인천
위치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222
문의 032-453-7700

트라이보울
위치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0
문의 032-832-7996

트라이보울

공연과 전시, 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열리는 복합문화공간 '트라이보울'의 주요 일정을 살펴보자.

트라이보울 시리즈 - 숨 X 굿

공연일정 7월 29일 (수) 19:30
장소 트라이보울 2층 공연장
관람시간 60분
티켓가격 전석 2만 원
문의 032-832-7992

트라이보울 기획전시 〈인천청년작가전 2026 인천 경계의 자리〉

전시일정 4월 7일 (화) ~ 7월 5일 (일)
장소 트라이보울 3층 전시장
관람연령 전 연령
티켓가격 무료
문의 032-833-5991

트라이보울 도시예술 산책

행사일정 8월 8일 (토), 9일 (일)
10:00 ~ 12:00
장소 트라이보울 외부
대상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가족 또는 성인
티켓가격 1팀(1인 또는 2인)당 1만 원
문의 032-833-5993

| 이달의 스페셜 |

한여름의 열기가 절정에 이르는 7-8월, 송도에서는 국내 대표 락 페스티벌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올여름, 소중한 사람과 함께 음악이 선사하는 짜릿한 순간을 만끽해보자.

행사일정 7월 31일 (금) ~ 8월 2일 (일)
장소 송도달빛축제공원
티켓가격 레귤러 티켓(1일권) 120,000원
문의 1899-6709

2026 인천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홈페이지 바로가기

일정	LINE-UP	※ 3차 라인업 기준
7. 31(금)	KHRUANGBIN, 더 발룬티어스, 쏜애플, The Lemon Twigs, 나상현씨밴드, 더 픽스, The Poles, 머드 더 스튜던트, MONO NO AWARE, 브로큰 발렌타인, 신인류, 심아일랜드, 윤마치, 카라라, 포저군단, 피치트리라하이재커스, 향우회, QWER	
8. 1(토)	The Jesus & Mary Chain, 혁오, 이승윤, 장필순, 권진아, 극동아시아타이거즈, never young beach, 더 킥스, 릴리 잇 머신, baan, 산보, 宋冬野 Song Dongye, 세이수미, Isyana Sarasvati, 우물과 풍갱쟁이들, 잭킹콩, 청요일, 초록불꽃소년단, TURTLE ISLAND, 하이파이유니콘, 할로우 젠, Massive Attack	
8. 2(일)	실리카겔, 솔탄오브더디스코, Original Love, 노이즈가든, 감귤서리단, Nyten, 다브다, 드래곤포니, 리도어, 백현진, betcover!!, 붕제인간, 아시안 스파이스 하우스, 이날치, 컨파인드 화이트, 터치드, 팻햄스터&강뉴, PIXIES	

Songdo ConvensiA

송도컨벤시아

ISSUE & CALENDAR

MICE 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는 전시컨벤션센터이다. 국제 회의부터, 인센티브 관광, 각종 전시박람회 등 복합적인 산업을 아우르는 송도의 랜드마크, 송도컨벤시아. 최대 450부스까지 수용 가능한 전시장은 물론 국제 회의장, 행사장이 마련되어 다양한 국내외 컨벤션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며 MICE 산업의 떠오르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MICE 산업의 떠오르는 메카, 송도컨벤시아의 이달의 이슈부터 행사일정까지 한 눈에 담았다.

* MICE 산업?
마이스 산업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와 박람 전시회(Events & Exhibition)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글로벌 AI 로봇 혁신의 무대 열린다

로보컵 2026 인천서 7월 개최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AI) 로봇 공학 대회인 '로보컵 2026 인천(RoboCup 2026 Incheon)'이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6일까지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최초로 개최되는 로보컵으로, 전 세계 45개국 선수단과 관계자, 관람객 등 약 1만 5천 명이 인천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회는 ▲축구(Soccer) ▲재난구조(Rescue) ▲가정서비스(Home) ▲산업(Industrial) ▲주니어(Junior) 등 5개 분야로 진행되며, 인공지능 로봇 기술이 펼치는 수준 높은 경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 전시회와 학술행사, 국제 콘퍼런스,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단순한 경연을 넘어 글로벌 기술 교류의 장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이번 대회는 IFEZ의 마이스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도컨벤시아를 중심으로 숙박, 교통, 관광, 문화 등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더하는 것은 물론, 인천이 미래 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이번 로보컵을 인공지능(AI)·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선점과 미래 인재 양성, 로봇산업 생태계 강화까지 아우르는 기회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물류 인프라, 인천로봇랜드와의 연계를 통해 기업 유치와 글로벌 산업 협력 확대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2026년 7월 송도컨벤시아 행사일정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로보컵 2026 인천	2	3 AI 창작대회	4 웨딩크라우드 웨딩박람회(7월 1차)
5 로보컵 2026 인천 웨딩크라우드 웨딩박람회(7월 1차)	6	7	8 2026 iH 관리자리더십 & 팔로워십 교육	9 2026 인천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	10 포에리아 인천 펫페어 2026	11 2026 케이다트 페스티벌 웨딩크라우드 웨딩박람회(7월 2차)
12 포에리아 인천 펫페어 2026 2026 케이다트 페스티벌 2026 인천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 웨딩크라우드 웨딩박람회(7월 2차)	13	14	15 2026 대한민국 드론·UAM 박람회	16	17	18
19 IAHR-APD 2026(2026 국제 수환경공학회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회)	20 2026 물환경 혁신 전시회	21	22 2026 Seminar Fair	23 2026 뷰티&헬스케어쇼 2026 인천가구박람회 2차	24 사이버 가디언즈	25 인천웨딩박람회(7월) 2026 인천 바이오 치의학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 기자재 전시회
26 2026 인천가구박람회 2차 인천웨딩박람회(7월) 2026 인천 바이오 치의학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 기자재 전시회	27 대한치과재료학회 2026년 하계 워크샵 소통교육강연 (7월)	28 인천 청년도약기지 청년인턴 일경험을 위한 기업 매칭데이 KET 신입사원 하계연수	29	30	31	

기술 인재 축제의 장 열린다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인천 유치…

국내 최대 기능인 축제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오는 2026년 8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인천에서 열린다. 인천광역시는 이번 대회를 유치하며 미래 산업과 기술 인재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대회는 송도컨벤시아와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등 인천 지역 6개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된다.

전국기능경기대회는 1966년 서울에서 처음 시작된 국가적 행사로, 우수 숙련기술자를 발굴하고 기능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인천 개최는 1979년, 1984년, 1995년, 2010년에 이어 다섯 번째로, 16년 만에 다시 인천에서 열리게 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지방대회를 통과한 선수 1,800여 명을 비롯해 지도교사와 자원봉사자 등 약 1만 8,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경기는 기계설계, 금형, 주조 등 전통 뿌리산업 분야부터 산업용드론제어, 사이버보안, 게임개발 등 첨단 IT 분야까지 총 51개 직종에서 진행된다. 숙련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조망할 수 있는 이번 대회는 기술 경쟁을 넘어 산업 변화의 흐름을 체감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이번 대회를 세계적 수준의 기술 축제로 발전시켜 미래산업 선도도시이자 기술인재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핵심만 쏙쏙!

일타강사

정보를 찾는 건 귀찮지만,
IFEZ는 알고 싶은 당신에게
핵심만 쏙쏙! 일타강사가 알려주는
IFEZ의 모든 것!

퀴즈 풀고 선물 받자!

퀴즈의 정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매호 5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마감
2026년 7월 31일(금)
보내주실 곳
ifez2021@naver.com
참여방법
연락처, 이름, 주소와 정답을 함께
기재하여 이메일로 전송

※ 당첨자는 정확한 이름, 주소,
연락처를 표기해 보내주신 분에 한 해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인천경제청-하나금융, 15년 신뢰의 결실 '그룹 헤드쿼터' 준공 완료

청라국제도시 하나드림타운의 핵심이자 대장정의 마침표인 하나금융그룹 본사 '그룹 헤드쿼터'가 지난 5월 21일 준공됐다.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가 본사를 서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최초의 사례로,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이전 절차가 시작된다. (…) 청라국제도시역 인근에 위치한 그룹 HQ는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지역 상생을 상징하는 1.1km의 나선형 보행 램프 등 독창적인 건축미를 자랑한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본사 이전을 발판 삼아 청라를 핀테크와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이 집적된 글로벌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명칭은 무엇일까요?

청라국제도시 하나드림타운의 핵심이자 대장정의 마침표인
하나금융그룹 본사 'OO OOOO'가 지난 5월 21일 준공됐다.

① 그룹 헤드쿼터 ② 그룹 에피소드 ③ 그룹 타운홀 ④ 그룹 드림타운

지난호 당첨자 여가은, 김영대, 황하윤, 이명표, 강현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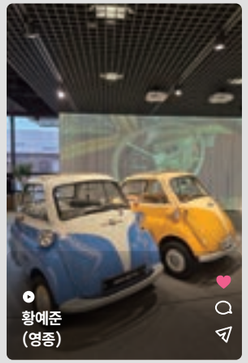
추억을 공유하는

IFEZ 일상 한 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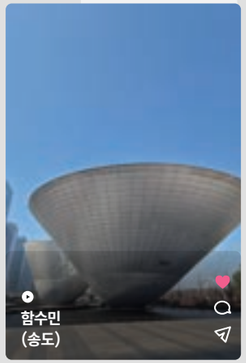
IFEZ의 일상이 담긴 사진을 짧은 글과 함께 응모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로 <IFEZ 저널>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마감
2026년 7월 31일(금)
보내주실 곳
ifez2021@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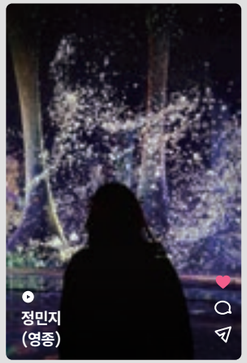
※ 사진파일, 사진설명, 성함,
연락처, 주소를 보내주신 분에
한해 추첨을 진행합니다.
※ 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리며 사진과
사연은 다음 호에 소개됩니다.


황예준 (영종)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드림카 직접 구경하니 넘 좋더라구요! 여러 차 다 구경하면서 더 열심히 벌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함수민 (송도)

친구들과 함께 송도 트라이보울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정민지 (영종)

영종도 인스파이어에 Le Space 전시 보러와서 즐거운 시간 보냈어요. 국내 최대 규모 미디어 아트 전시관답게 볼거리가 정말 풍성했습니다. 전시를 보고 나서는 쇼핑도 하고 게임도 하며 특별한 휴일이었습니다!

Opinion Leader's Review on IFEZ vol.129

WRITER

Jennifer George
(제니퍼 조지)
EAAFP 대표

주요이력
Henwood Trust 개발책임자
JS Solution Ltd 대표
Central Regional
Health School 학교 이사

IFEZ의 미래를 설계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은 <IFEZ Journal>을 통해 어떤 인사이트를 발견했을까?
지난 호에 담긴 IFEZ의 주요 소식들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리뷰해 보았다.

글로벌 정주 여건과 지속가능성, IFEZ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며

이번 5·6월호는 인프라와 교통망, MICE, 스타트업, 글로벌 교육 및 투자 유치 등 다방면으로 성장하는 IFEZ의 현주소를 명확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독자 관점에서 이 저널의 강점은 IFEZ를 단순한 비즈니스 지구가 아닌, 비즈니스와 라이프스타일, 문화와 혁신이 한데 어우러진 삶의 공간으로 그려냈다는 점입니다. 특히 교통, MICE, 도시 설계와 함께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실생활 서비스를 충실히 구성한 점이 돋보입니다. 그중 '스윗홈 가이드'는 외국인들의 실질적인 필요에 직접 대응하는 콘텐츠의 좋은 사례이며, 향후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도시디자인단' 인터뷰 역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도시의 정체성이 건물뿐만 아니라 거리, 경관, 조명, 보행 공간 등 일상의 경험으로 형성된다는 점을 잘 조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발과 삶의 질, 공공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연결하며 IFEZ에 관한 한층 성숙한 국제적 서사를 구축하는 탄탄한 토대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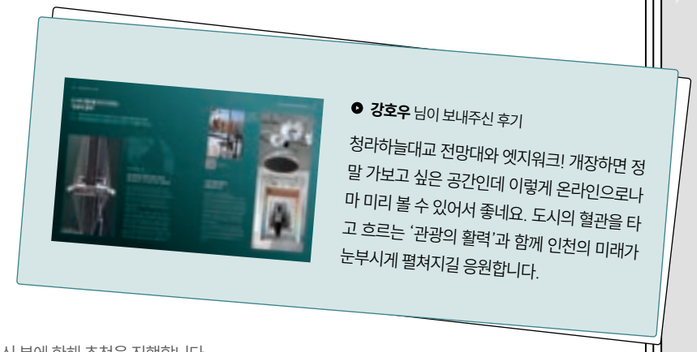
현재 전 세계 투자자와 기업, 국제기구들은 ESG와 기후 행동, 생물다양성 및 삶의 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IFEZ는 개발과 자연의 공존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본 저널이 혁신, 창업, 도시 설계 등을 자연친화적 개발과 연결함으로써 관련 국제 논의를 선도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EAAFP 역시 IFEZ가 비즈니스와 사람, 생물다양성이 공존하는 글로벌 혁신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파트너십을 이어가겠습니다.

<IFEZ 저널> 독자 후기 이벤트

후기를 부탁해!

IFEZ 저널에 대한 후기를 남겨주세요!
흥미롭게 읽은 기사, 다음 IFEZ 저널에서
보고 싶은 기사 등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마감 2026년 7월 31일(금)
보내주실 곳 ifez2021@naver.com



※ IFEZ 저널에 대한 후기, 성함, 연락처, 주소를 보내주신 분에 한해 추첨을 진행합니다.
※ 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리며 후기는 다음 호에 소개됩니다. 원고는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ifez
Incheon Free Economic Zone

INCHEON FREE ECONOMIC ZONE

GLOBAL BUSINESS INNOVATION HUB